

협회 소식

운영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협회는 지난 6월 12일 서울 논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봉희룡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홍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주택법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6~7%의 적정이윤 보장, 물가 상승률과 마감수준 향상을 고려한 민간택지 적용 기본형건축비 8~10% 인상, U-CITY시스템·지열냉·난방 시스템 등 가산비용 적용항목 확대, 민간택지비 가산 비용 반영을 현실화해줄 것과 지방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기타 투기과열지구 및 비투기과열지구는 즉시 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택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시공보증금액을 계약금액의 20% 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시 10%로 법령에 명문화하고 시공자 선정 시기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시기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홍보위원들은 주택법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회원사, 대한주택건설회, 대한건설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공공택지 공급 시 협회를 통해 회원사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협회는 신훈 회장을 단장으로,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을 부단장으로 하여 주택업계 대표와 대학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오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중국방지산업협회를 방문해 한·중 주택업계 대표단 회의를 갖고 현지 주택건설현장을 시찰한다고 보고했다.

회원사 소식

대림산업, '남산 맑음나눔 활동' 펼쳐



대림산업(부회장 이용구)은 '환경의 날'을 앞둔 6월 2일 서울 남산에서 토목사업본부 운영구 본부장(전우)을 비롯한 토목사업본부 임직원 및 가족 250여 명이 모여 남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남산의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병목과 잡초 제거, 고사목 수거 등의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 이날 행사에는 직원 자녀 50여 명이 동참해 '환경정화 현장체험학습' 시간을 갖는 등 맑음나눔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대림산업의 맑음나눔 활동은 2005년부터 전국 각 지역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서울 본사의 경우 이번 토목사업본부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총 2000여 명의 대림가족이 참여해 꾸준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5대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무주택 시민들에게 행복한 집을 지어주는 행복나눔, 장애우와 자활 근로자들에게 소망의 성금과 물품을 나누는 소망나눔, 문화 소외계층과 문화예술교육과 문화행사를 함께하는 문화나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외계층을 찾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나눔, 현장과 본사가 지역의 1산/1천/1거리를 가꾸는 맑음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대우건설, '사랑의 헌혈 캠페인' 펼쳐



대우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지난 달 29일부터 13일까지 본사와 전 현장에서 헌혈 희망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다.

대우건설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서 모아진 헌혈증서는 백혈병 소아암 협회나 사회단체에 기증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생활폐기물 전처리기술 환경신기술 인증 획득

롯데건설(사장 이창배)은 생활폐기물을 선별, 분리하여 연료화하는 전처리기술을 ㈜지한테크와 공동 개발하여 환경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롯데건설에서 개발한 기술은 생활폐기물을 고품질연료(RDF, Refuse Derived Fuel)로 제조하기 위한 전처리 기술로써, 국내에서는 재활용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기술이 개발된 적은 있으나, 생활폐기물 전체를 처리 대상으로 하는 기술은 롯데건설에서 개발한 것이 처음이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MBT시설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소각과 매립방법은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2차 오염, 높은 처리 비용 등의 문제가 있어 MBT시설 설치의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롯데건설과 지한테크는 이번 개발을 위해 기술제휴관계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분야 전문기업인 독일의 레몬디스사의 기술과 정부에서 추진한 MBT관련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환경신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폐기물전처리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MBT 사업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해외 시장 진출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태영건설 박종영 대표이사, '2007 주택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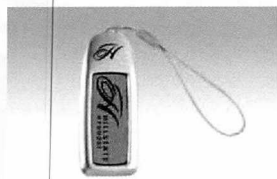


박종영 태영건설 대표이사(사진)와 황인수 성일건설대표이사(사진)가 각각 투명·윤리경영과 서민 주거안정, 중소건설사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박종영 사장은 1974년부터 현재까지 태영건설의 임원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정도·투명·윤리경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국내 상·하수처리 시설 및 환경플랜트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유관단체 기관장 및 건설업계 임직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60주년 기념 건설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업계 및 유관단체 임직원 등 163 명이 정부 훈·포장 및 건교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현대건설, '원 패스 골든 키' 개발



현대건설(사장 이종수)이 힐스테이트 출시 이후 고객만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원 패스 골든 키(One Pass Golden Key)를 개발하여 향후 분양되는 힐스테이트에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기존 아파트 입주자들이 다수의 출입용 카드를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나의 키에 아파트 출입 및 교통카드 기능까지 통합하여 입주자들이 단지 내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원 패스 골든 키'를 개발했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개발한 원 패스 골든 키는 하나의 키로 모든 곳의 출입이 가능해 여러 개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또한, 첨단 주차위치정보시스템(UPIS)과 연동하여 주차 위치에서 엘리베이터 호출 및 주차 위치 통보,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 입주고객들의 아파트 단지 이용의 편리함을 한층 높였으며, 지하주차장에서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휴대폰에 칩을 내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현장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힐스테이트에 걸맞은 고품격의 신상품과 기능을 겸비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 '올인원 홈네트워크 월패드' 개발



현대산업개발은 거실 조명 스위치와 홈네트워크 월패드를 하나로 통합한 '올인원 홈네트워크 월패드'를 앞으로 분양되는 아 이파크 아파트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기존 홈네트워크의 각종 제어 기능은 물론 다양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 조절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초박형 디자인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사용해 세련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원소식 원고모집

'Housing & People'은 회원사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Housing & People'에서는 'Housing News' 칼럼을 마련하여 회원사 소식을 게재해 오고 있습니다. 인사 동정, 대외 수상, 신기술·신공법 개발, 창립 기념 행사, 사회 공헌 활동 등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소중하게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다립니다.

▶ 모집원고 (회원사 소식)

임원 인사, 대외 수상, 세미나 및 학술 대회 개최, 신기술·신공법 개발, 창립 기념 행사, 사회 공헌 활동 등

▶ 보내실 곳

E-mail : sunshine@housing.or.kr
 보도자료와 사진(이미지)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tel. 02.512.0191~2, fax. 02.512.1312

▶ 마감 : 매월 15일

